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등록번호 제 24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639호 1995년 3월 21일 (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1



‘총체적 교육모순 극복과 3백가지 요구안’ 관철과 재단의 에·결산 공개를 요구하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3월 15일(수) 재무처장실의 집회를 열어냈다.

학교측, 등록금 13% 최종 인상

공대위, 3백가지 요구안 관철투쟁 전개

13% 인상이란 대학입학의 일반적 등록금 최종인상률에 맞지 않겠는가.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1차등록 거부운동을 펼쳤으므로 불합기 시작 한 올해 등록금 투쟁(등투)은 1차등록 연기를 50%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양캠퍼스 3백가지 요구안 관철투쟁으로 확대되면서 이후 대학입학과 학생들의 마음이 예상 된다.

대학입국은 지난 12월 23일(금) 20.9%, 26일(월) 15%, 28일(수)엔 13% (인문계 기준)로 등록금 인상률을 통보해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용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임성은(통·학·아름)이 4군은 이 과정에서 “대학입국은 학생들과 협의해 결정할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대학입국을 비난했다.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이번 등투와 관련 “등록금 투쟁 승리와 대학입국을 위한 이분·왕산 공동대행위원회(공대위)”를 결성,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의 부당함을 알리고 1차등록 연

기를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호소하는 4차례의 유인물을 재학생들의 가정에 발송했다. 또한 공대위는 등록금 확정 인상에 대한 근거확인과 학생 참여 보장을 위해 △99년 예산편성 요령 △기성회 관련 자료 △교수·학생·직원 3자 참여의 등록금조정위원회(등조위) 재구성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대학입국에 발송했다.

이에 대한 대학입국의 답변은 대학 재정 강화방안으로 △국고보조금 확대 △산하·관학원부 추진 △장학금 연구비등의 유치를 들었고, 등록금은 교수·직원만으로 구성된, 예산결산위원회(예산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 답변에 대해 △학교 모든 재원의 법적 소유자인 재단의 재단법인으로 확립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다 △학부모들도 구성해야 할 기성회 교수와 직원으로 구성돼 있을 뿐 아니라 최최고 없고 총회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등록금 확정에 교수·학생·직원 3자의 공동 참여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개강 이후 공대위는 ‘등투 승리’라

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하고 1차등록 연기를 50%의 성과를 학생들에게 알리고 2차등록기간에는 합법적 투쟁 방법으로 분할납부를 학생들에게 제안했다. 이에 따라 양캠퍼스 총 2백여 명이 2차등록기간에 분할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5일(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총체적 교육모순 극복과 3백가지 요구안 관철을 위한 애국·내외 실천대회”라는 이름의 집회를 열고, 등록금 확정과정에서 드러난 대학입국의 무성의함과, 졸업생문제, 신입생 교양사지 관매를 항의하는 의사표시로 재무처장·교무처장실의 집회를 열어내고 재무처장실 점거농성을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교육재정·교육내용·교육환경·연구기능에 대한 3백가지 요구안을 학생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 대학입국에 제시할 것이다”라고 이후 방향을 밝혔다.

한편 경리와 양영호 과정은 올해 등록금은 현재까지 98.1% (분할납부 2백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영 기자)

용인 교통난 다소 해소

지입제 버스 문제 해결이 과제

직행좌석버스 신설과 지입제 버스 폐지여부를 둘러싸고 학생들이 답답한 집회를 열어내는 등 극한상황까지 치달았던 용인캠퍼스 교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번 문제는 개강후 1113번(강변-하남-광주) 직행좌석버스를 학교까지 연장운행하고 1005 1번(광화문-강남-양재-학교)을 1005 1번(강남-양재-학교)과 총학생회와의 약속이 파기되고 대학입국이 일방적으로 양재와 용인캠퍼스간의 지입제 버스를 폐지하면서 해체정점사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총학생회는 지난 8일(수) “지입제 폐지 반대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6천인 결의대회”를 갖고 이강오 총무부처장과 서문경 총무부의 집회를 열어내는 등 강경한 반발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총학생회 독자적으로 관공버스 14대를 대량, 강남역과 용인캠퍼스간을 아침통근시간에 운행했다.

이외에도 총학생회는 교통문제에 관한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대학입국과 협상을 진행했다.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1113번·1005 1번 직행좌석버스 노선을 빠른 시일내에 유지 △500번·506번 좌석버스 노선을 강남역

까지 연장 △지입제 버스 운행 재개 △버스 요금 인상률을 정부고시안에 근거해 객정 △대학입국·학생 공동 교통대책반 구성 등이다.

위 요구안을 내건 학생측과 대학입국과의 협상에서 양측은 500·506번 노선을 지하철 2·3호선의 갈아타는 역인 교대역까지 연장하고 5대를 더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사항은 어제(20일)부터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는 그간 운행하던 관공버스를 20일(월) 운행중단했다.

총학생회는 빠른 시일내에 500, 506번 노선을 강남역까지 연장하고 1113번과 1005 1번 노선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총학생회는 관공버스 임대료를 대학입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입국은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직까지 대학입국은 지입제 폐지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측은 1113번과 1005 1번이 신설될 때까지 지입제를 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 이 부분을 대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영 기자)

국내최대 규모 CATV 개통돼

30개채널 12개 지역 방송 수신 가능

국내 최대규모의 세계위성방송 수신 및 CATV시스템이 상공 낙원인 지난 12월 20일(금)에 시청각교육원에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에 설치된 위성방송수신시스템은 30개 채널로 미국·중국·태국을 비롯한 12개지역의 방송 수신이 가능하다.

즉, 교내 케이블 TV는 위성방송 16개 채널과 기존의 6개 채널(KBS1, KBS2, MBC, SBS, EBS, AFKN) 이외에 교수가 신청한 VTR자료를 시청각교육원에서 송출하는 8개의 채널까지 총 30개 채널을 확보하게 된다.

지난 9월 5일(월) 사범대 옥상의 위성안테나 설치로 시작으로, 현재 6개의 위성안테나 설치와 대학본부·외국어 연수실·시청각교육원·대학원의 4개건물에 CATV시스템이 설치되어 1차공사는 마무리된 상태다.

올 6월까지는 방송수신망 확대와

CATV시스템을 도서관·사회과학관·학생회관·학원단까지 연결하는 2차 공사가 예정돼 있다.

약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번 공사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세계정보를 한 눈에 접하게 하며 현장감 있는 학습을 도모하고, 산하·관학 협동관계 맺어주는 주요 매체로 사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통후 2월말까지 시험운동을 했고 3월부터 학생들의 이용이 가능하

다. 최창은 시청각교육원 교육과정은 “시설은 좋게되는데 CATV전문기술진 확보가 힘듦, 캠퍼스 공간이 협소해 시설의 효율적 이용이 어렵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재경 기자)



개여있는 주인

▲ ‘세계의 중심은 나. 내가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라고 외치는 광고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대중화·획일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싶은 신세대들은 과감하게 자신을 세계의 중심에 놓게된 것이다.

나를 강조하는 것은 어떤 긍정적이기도 하다. 이는 자신을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를 강조하는 것이 ‘나’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오도되어 나 이외의 다른 것을 가깝게 남기며, 이기적으로 돌변해 버린 건 아닌지.

▲세계의 역사는 인간이 주인으로 서기위한 자각과 건설의 과정이었다. 지금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 운명과 역사의 주인으로 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경지해야 할 자제는 무엇일까.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죽기 직전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내가 죽으면 프랑스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절대군주로서의 권력은 어느 시기보다 막강했고 루이 14세는 평생 동안 모든 것을 자신의 의도대로 할 수 있었다. 이로써 그가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전통적인 주장처럼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믿고 있었지만 착각일 뿐이었다. 그렇기에 그의 신하들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으리라. 그가 죽으면 ‘그의 프랑스’는 사라질 것이니, 왜냐하면 세상은(?) 그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배하는 것은 다만 복종하는 신하들 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루이 14세의 그런 생각, 소수 지배세력들의 착각을 부추버린 것은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었다. 세계의 중심은 그가 아닌 시민들, 바로 수많은 역사의 주인으로 서려는 민중들이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봐야겠다. 또 진정한 주인으로 서기 위해서 나의 것만이 아닌 우리 주변의 일들, 나의 것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겠다. 나의 주변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주위에 어떤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더 크게 우리의 삶과 조국의 모습은 어떠한 지

▲신년호와 개교장을 건너 뛰어 개교호 아닌 개교호가 나오게 됐다. 외대학보가 그동안 해 나옴이 못마땅하고 이제 나오지, 방송 학보의 주인인 외대인들을 위해 얼마나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했고 실제 외대학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 수많은 질문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수미)

지면안내

- 3면: 행정편의주의가 낡은 졸업 불가 사태
- 4면: 50년 역사속에 우리교육-
 - ① 해방전후~5·16까지
- 5면: 해방50주년 특집면-남아있는 일본을 되찾아 본다.
- 6면: 외대 주변문화가 흥청거린다.
- 7면: 해방 50주년 기념 “천일파의 나라에 가다”
- 8면: 정부 주재정책 집단-강제철거의 현장에 가다
- 9면: 특집기획-한국속의 미국,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10면: 외대발전, 이제 다시 시작-
 - ① 92년도 외대발전운동 제1 배경과 그 전망



95 새내기만을 모집합니다

기회는 순간, 지금 바로 잡으세요

아직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제53기 수습기자 모집
마감: 바로 오늘 3월 21일(화) 늦은 5시
학생회관 2층: 이문-961-4152
왕산-0335-30-4112

외대학보

□ 서울·웅인 대학가 문화를 점검한다

취청이는 대학문화, 방향타를 돌려라



한국사회의 대학은 특수한 지위와 역사를 갖고 있다. 과거의 대학은 '상아탑' '우궁'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시대정신'의 리트머스지이다. 라는 말로 대변되기도 했다. 군사독재 정권 시기에 대학가의 어두운 침묵과 굴욕과 슬픔이 대학의 분위기를 짙게 했다. 90년대 들어 대학은 변화했고 더불어 대학문화도 숨겨진 빛깔을 띠고 있다. 대학문화의 지향적 경향은 작곡 솜씨에 비유할 수 있다. 그 지향은 그 동안 뒷걸음치던 대학의 대중문화에 대한 욕구로 대중문화의 향수로 발현되고 있다.

대중문화의 개인주의 문화가 대학의 과거에 누웠던 공중 문화 대신에 부분적으로 수용·확산되고 있다. 대학문화의 궤도를 같이 할 수

학자에서 제일 먼저 인기를 획득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총대입구나 신촌은 몇몇 대학이 모여 있지만 대학가보다는 서울의 안의 유흥지로 소비적 문화의 대명사로 더 많이 인식된다.

시대를 풍미하는 외대열로 돌아와 보자. 얼마전 사회과학자집인 '죽림클럽'은 간판을 내렸다. 그곳에는 '로비대어'가 외대인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을 하고 들어갔다. '죽림클럽'의 실종은 외대주변문화의 변화의 모습을 가장 여실히 보여준다. '죽림클럽'은 상점성을 띠고 있다. '죽림클럽'은 외대인이 진보적 시각을 지닌 지식인으로 발전하기 위해 일정 부분

을 도와준다. 또 외대인의 만남을 이끄는 공간이다. 메로칸에는 어느 과 총장파티, 생일잔치라는 할아버

새내기들의 첫 만남은 웅인캠퍼스 외대열 버스 기다리기 부터 시작된다.

장면의 117번은 그레도 나쁜편이다. 지입제 버스가 없어진 후 개선회 양제 발명의 500, 506번의 좌석버스는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아 아침 일찍부터 나와 저녁 서서 기다리는 형편이다.

우여곡절 끝에 돌아 탄 버스는 고속도로를 타고 산과 들을 지나 논과 밭이 보이면서 대학에 대한 설렘은 약간의 실망감으로 변한다.

웅인캠퍼스 입구 모퉁이의 주변은 94년 들어 새로운 건물들이 여럿이 들어 서기까지 했지만 여전히 어느 사람가를 분위기를 풍긴다. 뿐만 아니라 캠퍼스 입구에서 정문까지가 2개의 터널로, 정문에서 정당한 배틀로 들어

갈만한 시설도 없고 그래서 빨리 지나가자 하는게조' 김문수(사학사)는 1)군의 말이다. 학생휴게실이 아니라 휴게실이라 불리는 하지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날 정도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운동시설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은 운동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면 강의 이외의 학과시간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내야 하

이혜수(자연대·미술학과 1)안은 "도서관 자리 말로하면 94이전에는 아 한는데 그러하면 집에서 자어도 7시에 일어나는 것인데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또 도서관에 책들이 너무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읽을 게 없고, 빌리고 집에 가는게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명수당

국제화 시대와 지역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들은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정보의 교류는 이제 지구촌이라는 말이 그저 관념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감으로 와 닿을 만큼 좁아졌다.

지난 해엔 러시아의 해빙기를 방류가 우리의 시각을 위협하고 있다는 뉴스가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금년엔 서울의 스모그 현상의 주원인이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대기오염 물질 때문이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이런 세계가 긴밀히 이어져 상호의존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가고 있다. 세계 어느 곳에나 한

국인이 들어가 활동하지 않는 곳이 없고, 우리나라에도 또한 국적과 피부색과 종교 문화를 달리하는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함께 살고 있다. 우리들은 국내에서 일상적인 이문화(異文化)와의 접촉을 통해 문화충격과 문화마찰을 체험하면서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국제화 시대에 우리는 이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용적인 태도를 기질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생활시평

"생각하지 못했... 학교에 이런 카페가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한혜

올바른 대학내 생활공간이 돼야

경(사회·경영전공·1)의 웃음어린 말이다. 지난 3월 9일(목) 인문사회대에는 산뜻한 분위기의 카페가 문을 열었다. 5백평에서 8백평 정도의 카페와 교차, 음료수 등을 팔고 있다. 점심때도 아닌데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이전의 라면과 같은 분식을 팔던 카페 때문에 수직 차이에 서 부끄러워 한 것이다. "앞으로 세련된 후생복지관에 들어갈 매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무려 4천만원이 들었대요" 엄익준(인문·사회 4) 생활전의 말이다.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생활에서 무리하게 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학교와 학회가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은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복지시설의 설치가 절실하다. 건물 층층이 설치된 자

랑에서 커피를 즐기며 먹을 수 있는 카페를 굳이 카페까지 만들

아닐까 95년을 맞아 외대학내 '문화원'의 조성 작업이 진행중이다. 외대인의 사랑을 받았던 60년 '부수리' 말로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또 '명수당'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지역학에 대한 기회으로 연대할 것이다. 그동안 문화행사를 열려왔던 문화공간은 12년 정보원으로 이동하고 7건의 문화단에서 해와 학회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담담하게 할 수 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문화부)



김태정 (일본어과 교수)

하기 위해 각 대학이 개혁을 추진해 왔다. 우리 대학도 실질적인 지역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교과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이를 위한 교수 초빙이 장기적인 계획에 착수하여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개혁이 추진되어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학 발전을 위해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역연구가 사회과학과 특정 정치학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과과정은 해당 국가나 지역의 사회 인문과학 분야가 다양하게 포함되어야 하겠다. 대학원의 교과내용과 연계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현재의 우리 대학원 지역연구는 하루하루 정치학 중심에서 벗어나 다학제 사회 인문과학을 연결하는 종합학문의 성격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사회 인문과학을 하위문화로 분리하여 학과와 사회 발전에 더욱 공헌할 수 있는 명문대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대학인이 시대와 마주할 때 대학문화는 창조

밖에 없는 대학가 문화도 따라 변했다. 80년대에는 달리 90년대 대학의 욕구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렇다고 80년대 세대들의 문화적 욕구가 단절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때는 대학인이 함께 느낄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었던 '독재시대'라는 시대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창조적이고 저항적인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다. 90년대는 대학인의 정서가 다 안배되고 대학인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혼돈속에서 보이지 못했다. 이제 학원이라는 인식을 하지 마자 '취직'이라는 거대한 비위에 에워싸인 대학인이 있을 뿐이다. 경쟁없는 나라에서 대학인은 무기력하고 자기의 실존을 바라보고 있다. 대학인 스스로가 창조하고 향유하는 저항문화, 공동체 문화는 희박해졌다. 대학가의 대중문화 향수는 이를 뚜렷이 보여준다.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대학가 주변에서 신생 대중문화가 히트를 치고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라디오방을

글들이 넘쳐난 지리였다.

이제는 외대인이 외대의 문화와 주변문화에 대해 위기위기를 느낄 때다. 외대인의 문화와 주변문화를 만드는 사람은 바로 외대인이기 때문이다. 학내에서 대학인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공간은 부재했다.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밖으로 나가는 대학인을 위해 학내에 모여 줄 수 있도록 학내에 실질적인 문화공간을 마련하고 토론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 '외대'라는 특성을 십년 각 과 예술계와 영화계와 과목별 차원이 아니라 외대인의 문화 활동 공간의 하나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와 함께 대자보판을 통한 문예비평의 활성화도 절실히 요구된다.

대학문화의 정체와 혼돈은 당대 대학인의 정체와 혼돈을 반영한다. 대학문화의 주인은 바로 대학인이기 때문이다.

(오미나 기자)

후생복지관 건설이 왕산문화를 일구는 첫 디딤돌

이처럼 캠퍼스의 말리 떨어져 있는 모퉁은 학생들의 생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몇 년 사이에 모퉁이도 슬쩍이나 까페, 노래방 등이 증가하고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은 어느 한라가에서나 볼 수 있는 소비, 오락적인 외색 문화일뿐 대학의 문화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의 문화가 특별한 소수 계층 문화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는 교육, 문화예술, 언어, 체육보건, 생활식 등의 문화에 포함되는 모든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문화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특히 그 위치의 지리적 특성상 웅인 캠퍼스의 경우 학내에 대학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캠퍼스내 후생복지관의 건축은 대학문화를 이루기 위한 첫 디딤돌인 것이다. "대학에서 중요한 것은 커피가 백인이고 밥이 싸다는 게 아니요, 솔직히 그 외에는 모르겠어요. 특별한 여가를 즐

학내서점을 보더라도 그 역할은 단순히 필요한 교재구입의 장소라는 차이를 넘어 보다 많은 정보의 습득과 교원들의 공동구매를 통한 절감 효과의 복지기다. 비유를하자면 비지 등을 통한 제도의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문화분위기 조성과 자유로운 학문·사상의 연구와 토론을 후생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있어야 한다.

이처럼 기본적인 복지문제조차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멀어지게 됐다.

대학문화란 대학이란 공간에서 대학인이 주체가 되어 형성·향유하는 문화를 말한다. 그것은 학생들이 마음속과 몸 속 있고 활발한 대학 문화연구와 대학생활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하여 학내에서나 학외에서나 건전한 공간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학의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와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수미 기자)

외대학보는 '95 학망의 해를 맞이하여

40살이 되었습니다.

외대학보 40주년을 기념하는

독자여러분의 애정어린 글을 모집합니다.

4월19일까지

HALLA

지역환경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

MANDO



'개인미션'의 단상
화사미션의 단상으로
연결된다.
만도 21세기 미션의 핵심입니다.
만도는 인공위성 개발을
세계무대에서 화약의 정점으로
키우기 위한 해외수출 1개의 수혜.
해외 R & D 센터의 설립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94년 매출액 1조 100억원
당선으로 명실공히
큰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만도기계 -
최첨단의 기술을 갖춘 중앙연구소와
만도의 모든 기술인력은
세계정상의 기술개발을 향한
행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계 국내 최대의 자동차
부품회사 만도기계 -
21세기엔 정보통신 및
우주 항공산업까지 그 영역을
확대, 전문기술력으로
무한경쟁시대의
세계무대에서 승리가
되겠습니다.

인공위성 한평 한평을
전문기술로 키우고 싶은 만도기계 -
당에서 출발하여 쌓아온
전문기술력으로
21세기엔 하늘을 지배하기 위해
도약합니다.

만도기계(주)

본사: 경기도 군포시 당동 730호(만도빌딩)
TEL: (0343) 50-6201 ~ 6211
FAX: (0343) 59-6378

□ 금호·수색지역 강제 철거현장을 찾아

대책 없는 강제철거... 폭력배 동원

금호지역 철거민 박군백씨 분신사태

지난 15일(수) 종로경찰에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주최의 '95 전국철거민대회'가 철거민들을 비롯 시민, 학생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전철연 위원장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의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철거민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철거에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강제철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선전을 벌였다.

전철연은 지난 9년 6월 각 지역에서 활동하던 철거대책위원회들이 모여 꾸민 것이다. 즉, 철거를 당하게 된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같이 힘을 합쳐 정부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공공임대주택에 관련한 악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날 성동구 행당동 금호1-6지구에서는 그 지역 철거민

박군백씨(금호지구 철거민)가 운동복을 입고 16m 아래로 투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금호 철거민들은 자신들의 주거공간을 되찾기 위해 합법성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상동경찰서 소속 전경과 일산철거민 협력경찰들이 폭력을 휘두른 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 박씨를 분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하는 철거민들의 슬픔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살인철거'라 불리는 정부의 강제철거는 경찰력 동원뿐만 아니라 폭력배까지 고용한 무장비행 폭력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번 금호지구의 경우에도 철거민이 주민 40명이 올라가 있는데도 버림과 아이를 끌고 철거를 한다는 등 폭력의 연장이었다 한다.

전국의 무주택자는 1천여명이 넘는다. 90년 정부는 도시환경정비와 폐허한 주거공간 마련이라

는 이름으로 재개발을 시작하면서 집을 잃은 철거민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준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약속했다. 그러나 93년 8월 서울시는 기존 12만여에서 공공으로 이름을 전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가격을 4배로 올려 실제 철거민 대책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전철연 정책국장 김철택(46)씨는 "공공임대주택은 가격의 차이뿐만 아니라 5년 후에는 분양을 하게 되어 그 안에 분양비를 마련 못하면 사실상 임주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또 "실명 입주한다 해도 유증비율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몇몇의 이주대책비를 받고 오랜 생활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철거민 대책의 허구성을 말한다.

결국 집없는 사람들이 갈 곳은 무허가 주택이 난립한 달동네 뿐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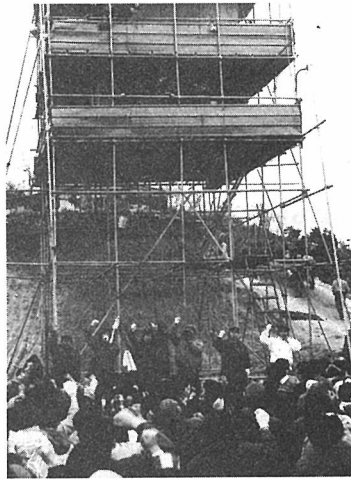
박군백씨가 엿그제 분신했던 금호지역도 원래 2천여세대가 살고 있었으나 개발이 진행될

이후 70세대에 남아 주민들은 가수방과 식당이 들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철거 위기의 12세대는 조립식 건물의 방 한칸조차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서울시 조례에 재개발 계획 결정시 일자의 3개월 전에 입주한 주민만 보상받는다

고 나와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금호지역 주민은 "안타깝게도 재개발을 계획하고 5년 후는 분양을 하게 되어 그 안에 분양비를 마련 못하면 사실상 임주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또 "실명 입주한다 해도 유증비율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몇몇의 이주대책비를 받고 오랜 생활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철거민 대책의 허구성을 말한다.

결국 집없는 사람들이 갈 곳은 무허가 주택이 난립한 달동네 뿐인 것이다.

박군백씨가 엿그제 분신했던 금호지역도 원래 2천여세대가 살고 있었으나 개발이 진행될



부하는 꼭 하라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일이 한두번도 아니고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무슨 공무원이냐"라는 말에는 이미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하루빨리 건물이 들어설기를 바라며 임시로 지은 기둥에서 거름을 낸 상태였다.

연일 계속되는 철야농성으로 피곤하다는 서울권 위원장은 "서울에만도 2만명이나 되는 철거지역이 있고 그것을 다 개발하면 순이익만 3천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한 개발이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지 않는 나라, 안테나 철거를 받고 강제철거를 대비해야 하는 나라라면 정말 저지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 지도 모른다. 주택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부가 말하는 국가경쟁력은 소수만을 살아남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박대현 기자)

인천 시민, 직접 해폐기장 선정 부당성 서명운동 벌여

지난 11일(토) 오후 2시 동인천에서는 인천 앞바다 해폐기장 건설 철회를 위한 인천시민 1백만인 서명운동본부(운동본부)의 발대식이 있었다. 운동본부는 발대식을 갖춘 이후 본격적인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인천 부천연협과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중심이 된 서명운동본부는 정부의 급업도 해폐기장 부지 선정이 철회될 때까지 인천지역의 1백만 시민을 상대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가두 서명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인천 부천연협은 지난 2월 27일(월)부터 매일 주민에서 해 폐기장과 해폐기장 선정의 부당성을 홍보하는 거리 사진전을 열고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방송 4사 노조, 방송산별단일노조 추진

7천 5백여 조합원과 28개의 개별 기업별 방송노조를 포괄하는 방송 산별 단일 노조 건설이 가시화 되고 있다. 방송 4사 노동조합의장단은 이미 산별단일노조의 공식명칭을 한국방송노동조합으로 확정, 5월말까지 건설을 완료한다는 일정을 마련해 놓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계에는 적년 연말 이후, 교육방송의 공시화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방송 4사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 그동안 교육방송은 국영방송과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던 교육방송 소속 직원들은 교육방송노조를 중심으로 편성의 독재성과 인권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국민의 방송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교육방송의 독립공시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교육방송을 KBS에 통폐합시키고 ZTV를 분리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왔다. 이런 정부정책에 대해 방송 4사 노조들은 자본을 통한 방송재정착을 옹호하고,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결의한 바 있다.

따라서 방송산별단일노조는 앞으로 산업방송 호거제를 기조로 하는 정부의 방송정책에 대응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산별노조를 기점으로 전국방송노조 회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총(노조) 움직임에도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앞둔 광주지역 탄압 가시화해

지난 2월 28일(일) 비전향 장기수 윤기남(70)씨의 정제사와 관련하여 광주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방법원장실 공안부는 8월 윤씨의 정제를 통일민주화운동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윤씨의 활동을 찬양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고무 찬양죄로 구속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의 재야 인사들은 지자체장과의 5.180리라는 커다란 점점을 앞두고 광주지역 민주세력을 탄압하려는 음모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장에 근무하는 안이무개(57)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한국에서 죽은 사람의 정제를 문제로 수사를 벌인다는 것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고 윤기남씨는 비전향을 이유로 28년간 복역후 89년 비전향장기수로 출옥, 위안을 얻어오다가 지난 2월 28일 사망했다.

배재대, 재단이사 총장취임에 교수·학생 강경대응

총장 선임문제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교수회의 회의 결정에 동향으로 한에 따라 배재대 사태는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공개초빙형식으로 총장을 뽑겠다는 재단국이 지난 10월(금) 일방적으로 박광수 재단이사장을 선임함으로써 산발하자 시국정세에 총장실내 참가농성을 들어가는 등 강력한 반발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한편 교원은 새총장 선임과 관련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계속 배재대의 취임을 지지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이다. 또한 이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16일(목) 박광수 취임까지 결의안을 갖고 오는 21일(토) 상정해 재단을 향해, 재단이사 총장으로서 선임된 박광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단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담의 가치

지난 2월 27일(월)부터 3월 1일(수), 본교에서는 처음으로 총학생회가 준비한 빈함이 있었다. 이번 빈함에 참여한 학생들(의대 4명, 서울시립대 9명)은 청량리 경동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팔아 상인들과 노고를 함께 했다. 빈함에 참여했던 이경수(정학·신방 3)군은 "하루의 생계를 위해 종일 서서 추위에 떠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체험했다. 생계공간 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점상 분들과 생활하는 학교에서 느끼지 못했던 일에 대한 보람도 느꼈다"고 빈함의 의미를 밝혔다.

같은 학생들은 마지막날 함께 생활한 전국노점상연합회 동대문중점구 상인 분들과 지매결연을 맺었다. 학생들이 사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이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박종진 기자)

74의 눈

"다시는 이런 등록금 투쟁(동투) 따위 일로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고민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다"

지난 7일(토) 본지적인 등록에 앞서 열린 학내운영위원회에서 용인 부총학생회

장 임성(동학·이학) 4 군이 운영위원들을 질책하는 한듯한 말이다. "예산안에 채록부 동원이 저리비 및 채록기재비가 오천만원이라 책정 되어 있는데 과연 일선사이에 촉구공이 몇개나 늘었는지 궁금하다. 또한 도서구입비가 6억 7천만원이 잡혀있고 한데 도서관에 늘어나고 있는 책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 예산만큼이라도 책을 구입한 것인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등록금은 작년보다 13% 올라 인문계 1백 46만원, 신인생이 1백 96만원이나 된다. 학교측은 올해 등록금 인상에 대해 불가인상과 인건비 상승, 5개개교장기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올린다고 한다.

이에 대해 영어과 회화과 김대형(교)은 "불가치 인상하고 더불어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은

답 잠아먹고 오리발

사실이지만 학교측이 책정한 등록금은 너무 높은 것임이다"라고 이번 등록금 인상의 부당성을 토로한다.

결국 등록금 인상의 부당함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금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측의 파다한 등록금책정에 대해 임명 총학생회는 '등록금 투쟁 승리를 위한 이론·완전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학교측에 등록금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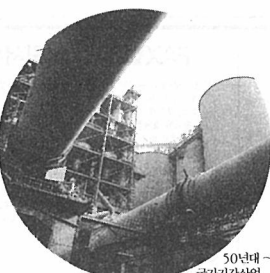
정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는 한편 분할납부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했다.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다니니 무슨 열한년 것을 배울 것이냐" 생각했는데 강의 시간들을 보면 돈을 그냥 쏟아 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는 한 학생의 말이 생각난다. 한마디로 등록금이 올랐음에도 정작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엔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과거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 등록금 투쟁은 단순한 학교와 학생들의 싸움만은 아닌 것이다. 학회가 취지는 학부모임들과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희망인 것이다. 새로운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들과 화사한 웃음처럼 다시는 이런 등록금책정에 대해 임명 총학생회는 '등록금 투쟁 승리를 위한 이론·완전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학교측에 등록금 책

(유경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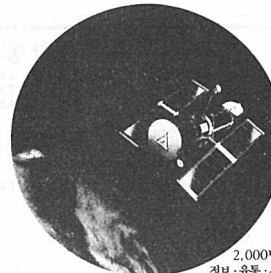
동양그룹이 점점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50년대 ~ 국가기관산업
국가기관의 국가기관산업과
중공업의 국가기관산업과
중공업의 국가기관산업과



80년대 ~ 종합금융산업
제2금융권의 핵심산업인 증권, 보험, 은행 등 자본·금융·서비스업으로
경제부각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2,000년대 ~ 정보·유통·서비스산업
미래산업인 정보통신, 유통, 서비스업 등으로
2천년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산업에서 미래정보산업으로— 동양그룹은 빠르게 미래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전이 있건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젊어지고 있는가? 80년대는 미래에 미리 나아가는 미래기업입니다. 50년대 우리의 경제현상에서 볼 수 있는 산업과 상품산업에 한해 앞서 뛰어났고, 80년대는 서비스업과 종합금융산업의 기초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다가온 21세기 우리의 미래는 정보, 유통, 서비스업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양그룹은 이미 이러한 미래산업에 시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원히 젊은 동양그룹,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동양그룹

한국속의 미국,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주한 미군을 통해 듣는 미군범죄

“피해 상관없이 미군범죄 미군에서 처리 당연하다”



기자 예상했던 것보다 미군들을 취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대부분의 미군들이 정치외교에 대해서도, 미군범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답을 하기 일췌였고 사진 찍는 것조차 거부했다. 기자가 이태원의 백도넬캠프버거점에서 처음 만난 흑인 병사 또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얼굴을 붉혔다. 앞에서 지켜 본다면 예민이 불쾌하다는 듯이 자신에게 질문을 요구했다.

한국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것은 모르겠는데 지하실 남자들이 신장을 건드린다. 상당히 불쾌하다.”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한국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연하다.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해서 한국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가. 한국사람들은 수입원을 싸게 사기위해 미국 PX에서 물건을 사면서 도와주려는 미군의 주둔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이를 배반적이다.”

주한미군의 범죄가 일년 평균 2천 5백건이 발생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치(아주 불쾌하다는 뜻)이다. 나는 잘 모르겠다.”

기자는 계속 얘기를 해보고 싶었으나 자리를 떠야했다. 인터뷰 도중 자 손님이 상한 병영원이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기 때문이다. 기자는 이태원 거리로 나와 다시 인터뷰를 시도했다.

처음에는 금장직으로 답하던 미군들도 인터뷰의 의도를 파악하자 자리를 피하려 했다.

2시간동안 자리를 잡다 웬디스햄버거점에 비교의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는 미군 2명을 만날 수 있었다.

한국에 얼마나 왔느냐
“6개월만 있었다. 6개월만 있으

면 본국으로 돌아간다.

주한미군으로 오게 된 이유는
“화비를 보기 위해 군대에 지원했다가 좌출되어 한국에 오게 됐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참 친절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규모는 많이 감축되지 않을까를 의외기도 하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미군에서 생활하는가
“복합이 있지 않나. 내 생각으로는 우리가 돌아가면 북한은 바로 남침할 것이다.”

미국의 한 고위 장군은 북한의 남침위협이 완전히 사라져도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었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규모는 많이 감축되지 않을까를 의외기도 하다.”

대장관을 증여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외기도 하다.

“그런 그들의 생각이다. 우리가 잘 가라앉힐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의지해 집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다고 한다.”

필리핀, 일본, 독일 등 주한미군은 미군들은 주둔비와 기사사용료를 본국에서 부담하면서 유독 주한미군의 경우만 한국에서 부담한다.

국대무대에서 한국이 정치적으로 많이 약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맥락인 것 같다.

미군범죄의 1%만이 한국정부가 법적행사를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대형범죄(정치적)가 아닌 절도, 강간, 살인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인터뷰를 마칠 때쯤 그들은 해열이 라는 이름의 파비펜호에 함께 적힌 중 이쪽지를 보여주며 한글발음과 비비치는 방법을 물었다. 병영원이 비비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며 고맙게 급히 자리를 나서는 미군들을 보며 기자는 그들 자신도 잘못은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대현 기자)

— 알 씀 —

지난 2월 18일(토), 이태원에서 만난 주한미군 병사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해 다음 신문에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핵문제 북미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을 때 당시 미 CIA 국장은 극비리에 한국에 방문했다. 그 후 남한에는 미 아전 전쟁소동이 일기 시작했다. 다음에는 미 국방부장관 페리가 페트리트 미사일을 팔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의 군사정책들이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이해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국군의 전신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군인에게 있어 평시작전권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한국속의 미국, 그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편집자주)

(사진은 당시 미 CIA 국장이 극비리에 방문한지 1994년 1월 21일 국방부 청사앞에서 카메라에 잡힌 모습으로 요원들이 기차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사진제공: 한겨레 신문)

국민보호권 넘겨준 국가 미군범죄 사법처리 연 2%

정부통계에 의하면 하루평균 5건.

연평균 2천2백여 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재판과 형사가 1.17%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서울지검의 경우 미군 미군속관련 사건은 모두 6백71명(미군 3백50명)에 이르렀으나 이중 16명(약식기소 1명포함)만이 기소됐다. 93년경우 또한 6백14명 중 검찰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한 것은 2%에 불과했다.

이렇게 우리정부의 재판과 형사가 지조한데 대해 주한미군 범죄피해를 위한 운동본부에서는 “우리가 미군에 대해 주한미군 범죄를 처리하는 것은 ‘한·미관계’를 규정짓는 한·미평정형(91년도 개정, 92년 판공) 참조)이 불충분한 채로 되어 있는 한 미군범죄는 끝까지 덮여 있다”라고 말한다.

실지로 지난해 5월 미8군 미군정통(47)씨가 요근문제를 시비로 수감을

재우고 불법 강간 폭행한 미군 2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미군법국의 거부로 해를 넘긴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당당상소)은 금급금 소제하인요구서 등 재판관련 서류를 수차례 우편으로 부쳤으나 수령을 거부당했으며, 지난해 11월말에는 집달관을 직접 보내는 ‘특별송달’을 실시했으나 출납자제를 지시당했다.

미군속이 이처럼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것은 행정형에 미군 개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미군 주둔지역에서의 범죄는 한국 법원의 관할권이라는 이유를 대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의 사법처리 미비에는 이러한 행정형상의 문제 이외에 영조도 남아있는 것은 대미공속적 재판관에 기인한다.

지난달 21일 한·미연합군 사령부 가 박일을 경찰청장 앞으로 주한미군 및 연합사령관 관련 사건·사고에 대해 보도자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경찰청은 20일 이를 여과없이

시도 경찰서뿐 아니라 일선 경찰소까지 하달했다.

한미연합군의 공문에는 사건, 사고에 관련된 어떠한 개인정보도 언론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을 금지하고 요청이 있을 시 주한미군공보실에 문의하여 제공할 것임을 일시에 명명내일 갖가지 한국경찰에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국가적 차원에서 대미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일선경찰서에 하달된 공문의 내용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그대로 요약됐을 뿐 아니라 주한미군공보실 한국인보좌관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기입하는 등 연합사령관에게도 나타나지 않은 내용까지 담겨 도착된 협조를 일선경찰청에게 지시하고 있다.

이에 주한미군범죄피해를 위한 공동대처위원회는 국군의 인권을 보장시켜야 할 경찰이 주한미군에 의해 국군의 재산과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러한 지시를 내림으로써 미군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회부)

□ 주한미군 범죄피해를 위한 운동본부 문헌에 수녀를 만나



“미군은 한국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공동대표 문헌 수녀(67세·본명 Jean Maloney)는 1953년 간호원의 신분으로 재타미의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42년간 줄곧 한국민을 위해 살아왔다.

“미군들에게 잔학하고 비참하게 죽은 시체를 4일만에 화장하는 것을 통해 의혹을 갖게 됐고 미군에게 유가족이 하기위한 것이라는 의식이 들었죠. 그래서 몇몇이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

다.” 문헌 수녀는 3년간 우연히 윤금씨에 살해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주한미군 범죄의 부당성을 알게 되어 일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미국인이지만 내 세계에 있는 군사문화에 반대하며 군사문화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권을 지키는 것을 보여줘야 할까요? 홍보활동의 부족과 시민들의 의식수준의 미숙함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미국인이지만 내 세계에 있는 군사문화에 반대하며 군사문화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권을 지키는 것을 보여줘야 할까요? 홍보활동의 부족과 시민들의 의식수준의 미숙함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치 미국인인 자신도 주한미군 범죄의 부당성에 분노하는데 당사자인 한국인들은 팔고 있다는 뜻이.

(박종선 기자)

□ 지역사회 - 부산시민들의 우리말 찾기

미군, ‘짬’ 하면 자기 땅

지난 50년 이후 주한미군이 무상으로 사용한 토지는 1백여 가지 8천60만 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나라의 경우(독일, 필리핀 등)는 미군이 사용하는 모든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해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패전국 일본도 패전 10년 후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반도 안보를 앞세워 미국이 이 땅에서 항구적인 초강대국의 명분을 삼각하게 해주고 있다. 이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해방은 우리 정부의 총독과 대미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일선경찰서에 하달된 공문의 내용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그대로 요약됐을 뿐 아니라 주한미군공보실 한국인보좌관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기입하는 등 연합사령관에게도 나타나지 않은 내용까지 담겨 도착된 협조를 일선경찰청에게 지시하고 있다.

이에 부산지역에서는 부산방 퇴각 시 시민대책위원회는 경찰,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부산 도시에 상주하는 미군에 상주함으로써 부산지역 주민이 심각한 불안감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이 부대가 이미 특수 군사보호시설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민들의 불만을 촉시켰다. 실제 이 부대의 반란을 촉구했던 이 또한 몇몇의 정권을 제외하면 계속관, 자동차수리소, 약제점, 생필품코

너, 장교클럽, 병원 심지어는 유아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시설(DOD)이 운영되고 있는 등 미군들을 위한 주거시설과 각종 편의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연합회의 이상우씨는 “미국인 1천여명이 16만평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부대주변 부처들 일대의 주민들의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주권이 전도된 듯한 무거운 마음을 누를 수 없다”라며 부산기지 반환운동의 의의를 말한다.

53년 원상복구(서명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공공 참조)에 의하면 주한미군기지의 철거는 미국이 원하기만 하면 한국의 어디에서라도 가능하다.

서울의 중심부 용산에도 미 8군기가 버티고 서 있다. 85만평에 달하는 이 기지는 시가로 825 5천여원에 상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지문제를 제외하고도 현재 한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20억 원에 달한다. 미군 1명당 연간 2천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우리는 빼앗긴 땅, 아니 빼앗긴 자존심을 미국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 - 삼성

Загадка озера



“현상금 1백만파운드의 네시를 찾아라!”

영국 스코틀랜드의 명물인 네시의 괴물, ‘네시’를 아십니까?

그런데 네시에 대해 보충을 붙여 현상금을 건 사건이 있습니다. 영국의 커티스 위스키사는 ‘스코틀랜드 네시’에 사는 네시를 잡는 사람에게 1백만파운드를 드린다고 합니다. 라는 기발한 광고를 했고, 그리고는 로이드 보험회사를 찾아 보험가입을 신청했었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네시를 찾아내면 상금 1백만파운드가 넘어가는데 그 값을 위험을 담보로 보험을 들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로이드의 보험인수업자는 네시포획의 가능성은 4백만분의 1이라 계산하여

우리나라 돈으로 2백8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받고 이 ‘네시보험’을 인수했습니다.

아무튼 기발한데 네시는 포획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커티스 위스키회사는 작은 상금으로 엄청난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네시사건’이 과연 보험으로 성립할 수 있을까요?

만약 네시포획의 확률이 0이라면 보험은 절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보험을 인수한 로이드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즉, 보험에 드는 사람은 과수를 실은다는 것을 믿었고, 또 이를 믿는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생모에 도전하다 보면 어느때까지 네시는 포획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네시포획의 확률이 처음엔 0이지만 무한한 확률을 시도하다 보면

생물학자 클라리다와 그의 동료 로스마 대교 조사가 들어와 네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84년 한 스코틀랜드의 저명한

각종 네시포획의 확률은 10 배입니다. ‘확률의 이론’을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로이드는 다름이 네시가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으나 네시포획의 확률이 있다는 위스키회사의 의견이 있었고 고개를 인내나 용다는 고개조심성의 생각에서 “네시보험”을 인수했었습니다. 것입니다.

“위험이 있는 곳엔 언제나 보험이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작가 P. K. 워터

1934년 출판된 네시의 모습

마음에 인상을 생물이 큰 힘

SAMSUNG
삼성화재

이것은 내가 외대 졸업생으로서 외대가 한
국 제일의 대학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조금도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치하는 것이
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과 삶의 터를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외대는 나의 고향이며, 서경
대학은 나의 삶의 터다. 내가 훌륭한 교수
나 학자로서 서경의 발전에 기여한다면, 이
것은 한국의 대학, 한국의 학문, 세계의 학문

이 덕 호
〈서강대 독문과 교수, 독일어과 59〉

다. 두 캠퍼스의 역동적인 모습은 과거의 유산에 미래의 가능성을 접목시켜 더욱 차원

외대는 이미 한국대학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외대는: 어류문의 노력에 있었으며 더욱 한국대학의 한국화에 노력하며, 세계대학의 중심에 자리잡게 될 것이다. 모두가 우리들의 높은 기상과 큰 책임임을 인식하고 더욱 훌륭한 외대 건설에 각자의 몫을 할 때다. 미국대학 외대 40주년 모토로 여러분이 내세운 '외대제일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이 일인 '외대제일주의'가 책임을 다하여 한국 제일의 학생이라고 자부할 때 이뤄질 것이며, 우리의 모교 외대는 한국제일의 대학이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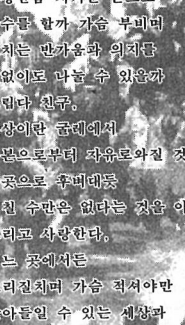
나라 안에서조차 개발한다고 집없는 주민들 내몰아 고귀한 목숨 죽이더니, 이제는 국제적으로 재개발하려고 그러시나 아니면 외국땅 사들여 집없는 민초들 집 지어주려 그러시나.

4474

친구에게

국가를 부정하던 너의 두손에
 대기업 사원모집 안내서가 들리고
 평가와 비판으로 속쓰린 밤을 누르며
 새벽을 맞이하razier 가슴 위로
 색조 있는 벵카의 꿈이 깃발처럼 펄럭인다
 깨어 있다면 시대의 이성이
 딱딱한 영어책을
 생사를 건 투쟁으로 조아대고
 숫자치는 미한 울음 수혈하고도
 땀발이 서던

20대의 처절한 몸짓은 더 이상
붉은 깃발이 아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만이 아닌
최대한의 문화생활비를 꿈꾸는
나는 어느 벅찬 미래를
이러서야 맡고 있다
매우 내 나는 은행잎
칠꽃들 물들어 지는 캠퍼스에서
자유와의 첫날밤을 위해서라면
슬픈의 정욕마저 누르겠다
출발하건 나의 고백은 이미
대학교문을 빠져나간 지 오래다



어느 길에서 다시 만나
 목침만큼 치켜든 손으로
 악수할 할까 가슴 부비며
 넘치는 반가움과 의지를
 만났어도 말할 수 있을까
 크니까 친구.
 세상이란 굴레에서
 자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송곳으로 후벼파듯
 의된 수만큼 없다는 것을 아는
 크니까 사랑한다.
 어느 곳에서도
 도리질치며 가슴 격셔야만
 말아들일 수 있는 세상과
 우리를 가뭇없는 그리워할
 너를

황자혜 《중국어와 87학번》

□ 마광수 초청강연을 듣고

마광수는 조금 옳다(?)

자신을 범법자로 내몬 자들을
(?) '모래 테러리스트' 일기 말로
비난해함은 그의 정연한 논리는
겐지 측은함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박
식한 사회·역사식과 절묘한
비유법은 모든 어설피 반대 논리
를 제압해 나갔고, 질문 시간에
여룰 수 있듯, 더이상 '시라가
옴니. 그러나 이는 원초적 물음
을 위한 봉쇄해 갔다. 그러나,
필자는 그의 논리에 8은 승강
하면서 나머지 2에는 의심이
든다.

우선 성공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자. 그의 말대로 세계화, 개방의 물결은 날아다니는데 있어 어떤 뒤따라가야 할 성의식의 성숙과 개방에 전구대입된 도덕관념과 구개별 폭력을 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는 확실한 문제가 있다. 지금까 우리문화라고 문화적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나 관례를 통한 문화적 간섭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간섭에는 반드시 정치는 감춰져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일깨워 경험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의 논리 하에 두어야 한다.

판단은 시장 즉 독자와 관객들
에게 맡겨야 한다. 처음에는 억
압된 것을 푸는 것이라, 많은 반
항이 따르겠지만 모든 것이 그렇
듯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성의식
은 성숙해지고 더 이상 '사람'은
시한폭탄같은 존재가 아닌 무관
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 이

미 그런지도 모른다.

또한 사람들이 썩소를 「소유」의 개념으로 규정했을 때 모든 갈등과 불행이 일어난다는 그의 주장 역시 옳다. 상대를 소유하지 않는 데서 모든 구족이 따르고 마음의 번민이 일어남은 굳이 「소유」의 역사를 들먹이지 않아도 이해할 것이다. 모두가 소유 즉 「자율」의 의식에 해방되는 것이 사실 이상적인 사회일 것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 타인과의 공
감대란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지
만, 대개 인간의 다양한 문화와 불
을 낳은 작곡의 사회에는 이 공
감대'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회
에 있어 '집단 무의식' 정도는 어
니라도 개인적인 '욕제'를 통한
공간의 현실'에 있어 '죄의식'이
없어야 함은 필연적이 라는 '개
방적이고 성숙된 성의식'의 중요
에 대한 가능한 것이라.

그러나 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생각과 대 마르크스의 '민족의식'과 그 실천적일수록 있는 그의 문헌에는 문제가 많다. 그는 "근본이 없고 쌍둥이 출산이여야 성공한다"라고 말하며 빨리 개방되어 자주 잡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물론 이는 그의 논조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선정성이 있어 팔자는 이를 감안하면서 비판해야 할 것 같다. 그는 우리가 '조선인',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사로잡았다는 안판다고 말한다. 그것이 자만적인 '수구적 자세'를 낳고, 개방을 늦추 발전이 더디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신봉



문학을 예술 혹은 외설의 잣대로 금그어 버리겠다는 전근대적 도덕논리도 문제지만 관능적인 묘사로 일관한 작품을 '리얼리즘'이라 강변하는 마교수의 논리에도 문제가 있다. 마광수를 선구자 대열로 올리거나, 유치한 '환타스틱 포르노' 작가로 넘겨 하느나는 지기철학을 실천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다.

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다. 우리가 '족비리'라고 경멸했던 일본이 광물왕국에 유망의 판화를 벌어들였는데 주지하지 않았고, 그것은 오늘날의 발전을 낳았다. 이것은 그들보다. 하지만 그들이 과연 완전히 자신의 근본을 포기했는가? 아니라고 본다. 그들은 '우'를 '개인'보다는 '민족'을 앞세우는 쪽으로 드물다. 개개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근본을 잃지 않았을 때만 그 발전의 방향과 속도를, 민족적 목표를 가늠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마땅치는 우리가 '무슨 단일 민족'을

나?'고 했는데, 민족이란 것은 '민족적'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괴'의 존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만큼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논리에는 수긍한다.

마지막으로 그의 논리의 실천인 문학에 있어 그는 '현대식 리얼리즘'을 추구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문학은 '한 타자'는 있어도 '리얼리즘'은 전혀 없다. 아마도 '쾌락'만을 '리얼'하게 묘사했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의 '성'개방의 이론이 실질적인 우리 의식의 개방이 고지라는 '정신' 아닌 '육체'로

배를 의문했다. 여기서 종교개혁의
 한 계기로 다시 발돋움하고, 공경할
 신실하게 믿는 것이었다. “물거
 성”을 추구하던 ‘죄의식’이 “종교
 죄의식”의 파괴의식 “통찰적
 신의비전”의 새로운 화의가
 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리아 서문 브로크 주위를 걸었다
 하고 머슴과 밭을 키우는 농부
 다. 모든 바깥의 의인적 대립
 는 즐거움과 “의식”에 불구하다
 이다. 여백은 큰 죄의감을 낳을
 는 “형식적 신 신의 비전”
 의식에서로 공경된 대립교과
 작품 “인간주의”나 노는 제
 리아현보다도 완전히 실질적
 신의교의 신 교령을도 마치
 지 못했는가에 의하는 아
 이었다. 즉 그는 이세대의
 성공했다. 또한 신의는 신의
 성가다. “종교개혁의 신
 대를 솔리타리 그 변형의 신
 이면 존재의식에서부터
 는 문제의식의 결여되었다
 결여적의 의의이다.

마교수에게 두가지 비판과
지침의 왜곡된 '성문화'와 그
면목을 날카롭게 조망하고 분석
하여 작품에 '문제의식 제기'로 변
영, 정발 문화적 감명을 주는 작
이다. 논자는 과거 '환타지'
'리얼'할수 있음을 노골한 작
'백년 동안의 고독'에서 보여
다. 모든 지기철학으로 그 실현
있어 크게 뒷받침되는 것이고,
것이 진정한 마블스를 선구자 대
에 올리는다. 유치한 '환타스
프르노,작가로 바네 그노스를
지려 하여금 판단하게 할 것이다

이동승 (서학·노어4)



촛불염원 되네기가 새내기에게 통일의 염원을 담은 불씨를 전달하고 있다. 새네기의 순수한 마음에 통일의 불꽃이 떠오르기를 바라
며...
지난 2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수난로 사조리조트에서 진행된 옹건캠프스
사회과학대, 인문대, 동구이대가 함께 한 새내기 새배움터에서. (박종서 기자)

학내 일정

20일(월)	21일(화)	22일(수)	23일(목)	24일(금)	25일(토)	26일(일)
	영어특강시작(왕산)		인문대 새내기 교양학교			
	새내기맞이 동아리 한마당		동연·서대 해옴식 외부초청문화공연(가안)			
	서대신입생주간(이문)		상대·사대 학생대표자회의			

임주임 식탁

[illegible]

응답 샘플



소련의 해체와 그 이후의 동유럽

크리스 하먼 마이크 해킨즈 지음/이현영 편역

소련 해체 과정의 견해에서 각광하고 있는 사회적 동력을 분석하고 그 이후 동유럽 사회의 성격을 역사적으로 분석했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아니라, 국가사회주의에서 다국적자본주의로의 이행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정권의 붕괴가 사회주의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포스트모더니즘주의적 관념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현시기를 해부하며 시사적 분석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국제화와 세계화를 자본주의의 현대적 양면과 연결지어 이해하는데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갈무리, 칠천원〉

■ 사람 사는 이야기

- 신경립 지음

‘신경립의 인물탐구’라는 부제에 걸맞게 우리 시대를 뜻있게 살고자 한 인물들의 삶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다. 작가의 이야기 속에는 세상에 이름을 날린 사람들만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실재한 농사꾼 신일성, 신치녀, 남반희, 비단장수 강태호씨 등 조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등장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중한 추억거리로 안겨줄 듯하다.

■ 이화에 월백하고

- 성준기 지음
본교 출신 성준기(서양.영어.71)씨의 편
소리 형식의 희곡집이다. 수채구멍, 밤손
님, 이화에 월백하고 등 7편이 실려 있다.
가난한 삶속에서 억압받고 탈취당하는 우
리에 민간인들의 생활을 소재로 다뤘다
김은 사 속 금박이랄도 쓰러질 듯한 초

■ 상식밖의 예술사

- 정윤 지음
 신다섯개의 에피소드는 독자의 무지와 상식에 대한 도전이다. 당연히 밑에 의심치 않은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물론 새로운 예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히 상식의 지평을 넓히려는데 있지 않다. 예술은 '정치·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의미의 산물'이라는 굳은 믿음 속에서 옛날이래의 말만 들어도 켄스레 누구부터든 사람들은 다독거리며 인류가 이루어온 예술세계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새길·6천원〉

상속받은 나라에 가다

- 이충렬 지음

김일성 사후 권력승계 작업을 하고 있는 북한 내부의 모습을 언론에서 직접 보고 쓴 르포다. 단군 개국 준공식, 김일성 조주 백일, 북한학의 X세대 등 방북기간중 벌어진 북한의 공식행사 취재기로서 안팎인사의 인티부, 평양과 고성 위원의 시샘을 및 유적 답기 등을 실고 있다. 우리 민족이 여년간 다룬 제재 속에서 따로는 사이 이질화 되어 있는 점을 적확하게 보여줌으로서 동질성 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한

〈살림터 · 5천5백원〉